

<2018년 1월 28일 주일말씀>

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흥분이다 흥분돼야 제대로 하고,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

본 문 학개 1장 14절

『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
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
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
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』
(성경, 개역한글 버전 참조)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**흥분**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흔히 사람들은 ‘흥분’ 하면,
이성의 흥분, 사랑의 흥분만 생각합니다.

그것이 아닙니다.

<자기가 좋아하는 상태, 기뻐하는 상태>

그것이 바로 ‘홍분된 상태’입니다.

◆ <홍분>은 ‘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’ 이기도 합니다.

-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
- 음식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
- 건강을 위한 운동도 자기가 싫으면 못 합니다. 그렇지요?

<홍분>을 ‘이성 홍분, 육 사랑 홍분’ 으로만 생각하면,
더 넓고 깊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

◆ <홍분>은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, 차갑게도 합니다.

<홍분>은 좋아하게도 하고, 기뻐하게도 하고,
걱정되게도 하고, 불안하게도 합니다.

방향이 다를 뿐이지,

<홍분>은 ‘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움직이는 힘’ 을 갖고 있습니다.

이 <홍분 상태>를 잘 써야

각종 할 일들을 ‘희망과 기쁨과 즐거움’ 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◆ <홍분>은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.

생각해야 됩니다. 행해야 됩니다. 일을 해야 됩니다.

가령 <노래>에 흥분되려면,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기뻐하고 좋아하며 자꾸 노래를 불러야, 노래에 흥분됩니다.

가만히 있으면, 감흥이 없습니다. 맞지요?

<할 일>에 흥분되려면, 자꾸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.

가만히 있으면, 하루 종일 <일>에 흥분되지 않습니다.

<할 일의 흥분>이 일어나지 않으니,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.

- ◆ <이성 사랑, 육 사랑>만 ‘흥분’ 이 아닙니다.

잘못 생각하면, ‘흥분의 근본’ 을 깨닫지 못하고
자꾸 ‘이성 사랑, 육 사랑’ 만 생각합니다.

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.

- ◆ <삶 속의 흥분>은 ‘수백 가지’ 입니다.

무엇이든 좋아하고 기뻐하고 희망에 불타서 생각하고 행하면,
<흥분>이 일어나서 기쁨과 희망으로 하게 됩니다.

- ◆ <기도>도 ‘흥분 상태’ 에서 해야 잘됩니다.

그러려면 자꾸 삼위를 찾고, 할 말을 하고,
깊이 대화해 버릇해야 됩니다.

그러지 않으면 ‘겉도는 기도’ 라서
기도할 때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.

그러니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.

- ◆ <말씀>도 ‘흥분 상태’ 에서 듣고 행해야 됩니다.

모르는 것들이 많으니 반복해서 듣고,
깊이 깨달으려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.

그러다 <말씀이 궁금해서 빨리 듣고 싶은 단계>,
<말씀이 기다려지는 단계>,

〈말씀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단계〉까지 가면,
그 단계가 ‘흥분된 상태’입니다.

그 상태에서는 말씀을 행하게 되고, 〈행하는 맛〉도 알게 됩니다.

- ◆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
〈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〉이 좋고 기쁘면,
그것이 ‘그 면에서 흥분된 것’입니다.

- ◆ 〈쇼핑〉도 좋아하고 기뻐하며 거기에 빠져서 하면,
〈생각〉도 〈행실〉도 ‘쇼핑에 흥분된 것’입니다.

〈음식〉도 좋아하고 기뻐하며 빠져서 먹으면,
〈생각〉도 〈행실〉도 ‘먹는 것에 흥분된 것’입니다.

- ◆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.

성령님은 말씀하시길

“〈육적 사랑〉만 ‘흥분’을 주는 것이 아니다.

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며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,
거기에 흥분된 것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〈황금성 천국〉은 ‘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세계’라서
영원히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니,
〈흥분된 상태에서 사는 세계〉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흥분되면, 좋아하고 기뻐하니 ‘힘든 일’도 하게 됩니다.

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면, ‘어떤 일’이든 힘이 듭니다.

그래서 ‘좋아하는 것, 기뻐하는 것’이 참 큼니다.

좋아하고 기뻐하기 위해,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흥분>이 일어나서, ‘꼭 할 일’을 하게 됩니다.

<신앙의 모든 일들>도 그러합니다.

<자기 책임의 할 일>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해야,

힘이 안 들고 쉽게 하게 됩니다.

- ◆ 하루는 <선생이 매일 꼭 해야 될 일>을 놓고

‘오늘도 또 일을 해야 되네. 힘들어. 지겨워.’ 하며
질린 상태에서 했습니다.

그랬더니 진절머리가 쳐지고, 일이 너무 지겹고 힘들었습니다.

일이 크게 보이고, 일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.

너~무 하기 싫었습니다.

결국 일을 줄여 버렸습니다.

그러니 남은 일마저 ‘에잇! 이 일도 안 하면 편하겠다.’ 하고,
남은 일들도 지겹게 생각했습니다.

<내가 할 일>을 안 하니, 안 한 만큼 하나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.

- ◆ 결국 일은 해야 되니, 기도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.

- ◆ 이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흥분되어 해야 된다.

그러지 않으면 뇌신경이 일을 거부하게 되고,
생각에서 싫어지니 못 한다.

내가 할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도록 삼위의 뜻을 깨닫고,
네 마음을 좋고 기쁘게 흥분된 상태로 만들어라.

사랑도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게 되지 않느냐.” (하셨습니다.)

- ◆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<일>만 생각하지 않고
<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보람>을 생각했습니다.

그리고 <그 일로 인한 뜻과 목적>을 생각하며,
왜 즐겁고 기쁘지 생각했습니다.

그랬더니 각종 편지나, 글이나, 그 어떤 일도
좋아하고 기뻐하며 흥분된 상태에서 하게 되었고,
그랬더니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,
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.

- ◆ 모두 <저마다 매일 할 일>을 놓고,
‘오늘도 또 일해야 되네. 또 공부해야 되네.
힘들어. 지겨워.’ 할 때가 많습니다.

육적인 일이나, 영적인 일이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.

그때마다 <그 일의 목적>을 생각하고 <보람>을 생각하면서,
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기 바랍니다.

그 일에 흥분되어서 해야
일이 힘들지도 않고, 지겹지도 않고, 진절머리도 안 치고
행한 만큼 ‘목적과 보람’을 누리게 됩니다.

공부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해야
지식이 뇌에 쏙쏙 들어오고 잘 외워집니다.

공부한 만큼 육으로도 영으로도 멋있게 써먹으면 됩니다.

◆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도 참 힘들었습니다.

<무거운 돌을 쌓는 것>은
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이라
기술자들도 ‘죽음’을 생각하면서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.

결국 “저렇게 큰 돌을 쌓는 것은 두렵다.” 하며,
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.

◆ 그러나 선생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.

오늘 성경 본문, 학개 1장 14절 말씀과 같이
하나님은 그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마음이 흥분되게 하셨습니다.

『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
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
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
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』

그래서 <야심작>을 다 쌓은 후 다섯 번이나 무너졌어도
<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상의 작품>을 만드니,
좋아하고 기뻐하며 흥분되어 했습니다.

그랬더니 ‘큰 돌’도 작게 보였고,
자꾸 ‘더 큰 돌’을 구해서 웅장하게 쌓았습니다.

너무 좋아서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우면서, 해가 뜰 때까지 했습니다.

이렇게 자연성전을 건축했으니,

모두 깨닫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흥분되어 쓰기 바랍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오늘 성령님의 계시는

“<좋아하고 기뻐하는 것>이 ‘흥분’ 이다.

흥분돼야 제대로 한다.

흥분돼야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.

그냥 하면 억지로 한다.

고로 힘들고 지겹고, 해도 제대로 안 된다.” 입니다.

◆ 선생도 흥분되어 하지 않고서는

매일 새벽 1시, 2시에 일어나서 기뻐하며 기도를 못 합니다.

흥분되어 하지 않고서는

매일 볼펜 두세 자루를 쓸 정도로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.

◆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, 곧 ‘흥분’ 을 잊으면

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.

<좋아하고 기뻐하는 것>이 ‘축복’ 입니다.

◆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.

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조정하면서 짐을 줄이되,

일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.

<일>이 ‘자기 사명’ 이고 ‘면류관’ 인데,
일이 많아서 힘이 없다고 일을 줄이면
자기 사명의 권세와 축복을 놓는 격이 됩니다.

◆ 신앙의 일도 그러합니다.

전도하는 것, 관리하는 것,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,
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는 것, 말씀을 연구하는 것,
설교하는 것, 노래하는 것, 기도하는 것 모두
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해야 흥분되어 잘해집니다.

자기가 하고자 하면, 하게 됩니다.

그러나 왜 하는지 <가치>도 모르고,
<목적>도 모르고, <앞날>을 모르니
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.

◆ 선생은 크게 ‘매일 일곱 가지’ 를 합니다.

좋아하고 기뻐하니 해집니다.

일반 사람은 ‘하루에 한 가지’ 하기도 힘듭니다.
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흥분이 안 돼서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.

<일곱 가지 일의 내용>을 쪼개서 보면,
매일 하는 일이 ‘70가지’ 가 넘습니다.

그래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.

그것도 바깥에서가 아니라, 여기서 합니다.

사실 불가능하지만, 좋아하고 기뻐하니 합니다.

선생도 지겹다고 생각하면 ‘한 가지’ 도 못 합니다.

◆ <매일 하는 일곱 가지의 일>은

첫째, 새벽 1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도와 대화하기.

둘째, 말씀 받기.

셋째, 설교 쓰기.

넷째, 시 쓰기.

다섯째, 작사 작곡하기.

여섯째, 각종 서류 결재, 편지 등 수습 전의 문제 해결하기.

일곱째, 근육 운동 1000회씩 하기. (입니다.)

처음에는 근육 운동을 하루 70회씩 했습니다.

매일 꾸준히 하다가, 이제는 최대 1000회씩 합니다.

이 중의 한 가지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 일입니다.

그래도 일곱 가지를 매일 꼭꼭 합니다.

이렇게 <기본으로 꼭 하는 일>이 ‘일곱 가지’ 이고,

쫓아서 보면 ‘70가지’ 나 됩니다.

◆ 그런데 이곳 환경이 좋지 않으니,

하루 종일 거의 앉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.

이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.

하루도 내 할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최고로 힘든 일이 ‘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’ 입니다.

그러니 몸이 절단 나는 것같이 힘듭니다.

목과 척추가 틀어지고, 어깨가 굳고,

하루 종일 서류와 편지와 글을 보니 눈이 피곤하여 안 보입니다.

그대로 두면, 몸이 다 망가집니다.

그래서 그때그때 몸을 풀면서 해결합니다.

- ◆ 아무리 힘들고 고생돼도 <하나님의 뜻과 목적>을 놓고
좋아하고 기뻐하며 흥분되어 행하니,
하나님 앞에 ‘역사상 세계 최고의 시중’ 을 들 수 있었습니다.

- ◆ 내가 슬피하고 괴로워하면,
삼위는 너무나 큰 충격을 입으십니다.

고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힘들다고 하지 않고 했습니다.

어느 때는 성자께서

“너, 견딜 수 있겠느냐?” 하셔서 “괜찮습니다.” 하니,

“그럼 됐다. 너만 괜찮다면, 내 너로 역사를 편다.” 하셨습니다.

그때마다 할 일들을 다 해내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네 주변이든, 어떤 나라든, 그 누구든지 행위대로 갚아 주고,

이 시대가 너를 대한 대로 행하였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결국 10년 동안 <시대 십자가>를 지면서,
<하나님의 뜻, 최고의 사랑의 목적>을 이루고 말았습니다!

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 기간 동안

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.

내가 내 사명을 안 하면 누구도 못 하니, 기쁘게 했습니다.

- ◆ 늘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

“6000년 구원역사를 하면서,

삼위께서 <마지막 섭리역사>를 놓고
얼마나 희망과 사랑이 불타셨습니까?

그러니 그 발판을 만들면서, 끝까지 하겠습니다!” 했습니다.

- ◆ 죄인들에게 끌려 다니고 묶여 다니며
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, 또 두려운 가운데서도
그때그때 삼위가 기뻐하시도록 할 일을 다 했습니다!

- ◆ 2017년 마지막 때, 또 충격과 고통이 있었습니다.
그러나 굳건히 할 일을 했습니다.

‘나는 누가 위로해 주나?’ 생각하고 있을 때,
<큰 손>이 ‘내 손목’을 꼭 잡고 있는 이상을 봤습니다.

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. 삼위의 손이었습니다.

- ◆ 시대가 모르고 막는 중에
이렇게도 모르는 자들을 데리고 <하나님의 역사>를 이루다니,
<정녕코 하고자 하는 생각>이 나를 일으켰습니다!

- ◆ 그리고 <이 시대>와 <시대 모든 자들의 행위>를 놓고
새 노래를 지었습니다.

그리고 1000년 동안 ‘거울’이 되게 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은 누구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.
절대 굳건하다,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.

때에 따라 다 흔들리고 바람을 탑니다.

보다 적게 흔들리느냐, 많이 흔들리느냐의 차이,
<자연성전 세운 돌>같이 ‘안 흔들리는 사람’은 한 명도 없습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길

“누구든지 <영>이 ‘휴거’ 됐어도 <육>은 100% 못 한다.

네가 위로하고 잡아 주어라.

다 굳건할 거라 믿지 말고, 관리해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주를 알아도 힘들어지면 흔들리고,
자기 생각으로 빠지면 누구나 흔들립니다.

그래서 평소에 잘한다고 해서 일만 시키면 안 됩니다.
모두 한계가 있습니다.

이는 마치 **매 경기 때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은 없는 것**과 같습니다.
<금메달을 딴 선수>도 어느 때는 ‘은메달’도 따냅니다.
국가 대표 선수라도 아예 ‘메달’을 못 따기도 합니다.

섭리사에서도 그러하니,
아무리 잘하는 자라도 때마다 위로하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.

◆ <10년의 십자가 기간에 끝까지 한 자>는

- ‘**금메달을 딴 자**’입니다.
- ‘**이긴 자**’입니다.
- ‘**주와 일체 된 자**’입니다.

흔들려도 ‘끝까지’ 해야 됩니다.

<흔들려도 끝까지 할 일을 한 자>가 꿈을 이루고 승리합니다.

◆ <마지막>이 크고도 큼니다.

이제 <시대 십자가를 다 지고 부활되어 희망을 맞는 해>입니다.

혹여 힘들어도, 흔들려도 ‘주와 끝까지’입니다!

이제 희망을 맞기까지 20여 일 남았습니다.

그러나 성령께서 2월부터는 날짜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

모두 희망과 감사로 기뻐하며 살기 바랍니다.

<그때까지 끝까지 뛰는 자>는 ‘금메달리스트’입니다.

◆ 작년 꿈 기억나지요? <경주하는 꿈>이었지요?

사력을 다해 몸부림쳐 뛰고 달리니 숨이 가빠 기진맥진했는데,

그때 메뚜기가 앞에서 나를 슬쩍 잡아당겨 주니

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받아서 다시 뛰는 꿈이었습니다.

어느새 <겨루는 자>는 뒤에 처져 있고,

<선생>은 앞서 있는 꿈이었습니다.

<메뚜기>는 ‘하나님과 성령님’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.

이 꿈은 <목적>을 두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시니,

힘들어도 경주하듯 <목적>을 향해 끝까지 뛰라는 꿈이었습니다.

◆ <경주하는 자>는 ‘끝까지’ 뛰어야 됩니다.

아무리 잘 뛰어도 ‘끝까지’ 안 뛰면, 실격 처리됩니다.

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◆ 작년 연말에 한 운동선수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

<경주하는 꿈>을 생각하며, 1년 동안 목숨 걸고 뛰었다고 했습니다.

<평가전>이 있었는데,

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가 잘 안 풀렸지만

끝까지 주를 부르며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뛰었다고 했습니다.

<2017년 섭리사의 꿈, 끝까지 뛰는 꿈>을 가지고

뛰었다고 했습니다.

결국 맨 마지막에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고 했습니다.

끝까지 하니, 하늘의 별을 따는 듯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.

- ◆ 모두 <섭리를 달리는 사명자>가 되어
주와 같이 끝까지 하기를 축원합니다!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면,
흥분되어 하니 제대로 하게 됩니다.

희망과 감사로 하게 됩니다.
- ◆ <할 일>을 두고 ‘**하고자 하는 자**’는
어떻게 해서든 틈을 내서라도 합니다.
- ◆ 진정으로 주를 믿고 사랑한다면,
이유를 대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끝까지 주와 같이 행합니다.

이로써 주를 사랑하는지, 주 앞에 순종하는지 알게 됩니다.

- ◆ <끝까지 한 자>는 흔들리면서 했어도 ‘승리자’입니다.

안 흔들렸어도 <끝까지 안 한 자>는
안 한 것에 있어서는 ‘패한 것’입니다.

- ◆ 좋아하고 기뻐함으로 흥분해서 해야

어려운 일도, 힘든 일도, 좋은 일도, 작은 일도, 큰일도
다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섭리인 모두, 각자 개성대로 이같이 해 왔기에
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.

기어이 할 일을 하며, 여기까지 왔습니다.

특히 <표상자들>은 절대 기어이 행하기 바랍니다.

이제 다 왔습니다. ‘주와 끝까지’입니다!